

PVC, 건축용 비수기 “가격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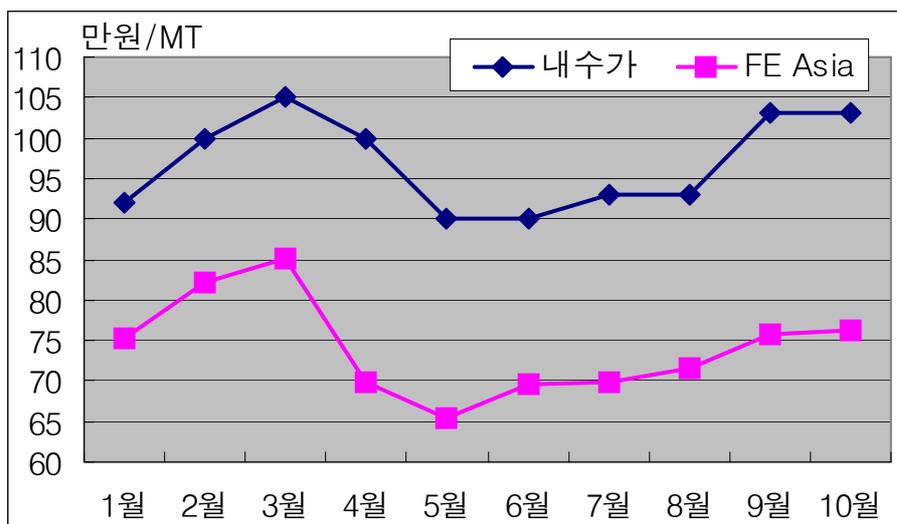
10월 FE Asia 톤당 30달러 상승 ... 코스트 압박 12월 인상 검토

국제시장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PVC 가격이 내수시장에서는 11월에도 톤당 103만원에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PVC 생산기업 관계자는 “11월 PVC 내수가격은 톤당 103만원으로 동결했으나 최근 국제가격 상승과 원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빠르면 11월24일에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PVC 국제가격은 극동아시아 시장에서 타이완의 Formosa가 Mai Laio 크래커 보수 및 Kaoshiung 소재 VCM 2개 플랜트가 10월18일 플랜트 트러블로 긴급보수에 들어가 VCM 11월 수출량 약 5000톤을 포기해 극동아시아 지역의 PVC 가격은 10월 초 FE Asia 톤당 630-650달러에 거래됐으나 10월31일에는 톤당 660-680달러로 30달러가 인상됐으며, 11월에는 675-685달러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PVC 가격추이(2003)



또 PVC 11월 거래물량을 타이완 및 한국 생산기업들이 CFR China 톤당 650-660달러에 공급했고 아시아 PVC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내수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격전망이 좋은 편이며, 12월에도 여러 생산기업들이 CFR 아시아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수가격은 수요가 많은 건설시장에서 Pipe용 및 창틀용 등이 계절적으로 비수기라는 악재로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생산기업들이 조심스럽게 가격인상 검토하고 있다. 한 생산기업 관계자는 “최근 코스트 상승압박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PVC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가격은 9월 C&F Japan 톤당 265.81-266.94달러에서 10월 282.85-285.56달러로 15달러 이상이 상승했으며, 11월에도 291.75-295.5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PVC 가격도 9월 SE Asia 톤당 630-647.5달러에 거래됐으나 10월 644-662달러, 11월에는 670-690달러로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